

# 봄철 오리 사양관리 요령



김지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금과 박사

2003년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우리를 긴장케 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지난 겨울에는 천만다행으로 잠잠했다. 그러나 2008년에는 4월까지도 발생한 전례가 있었고, 야생조류에서는 HPAI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각종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자칫 소홀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절기는 사양관리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봄철에는 날씨의 변화 및 일교차가 커서 환경 스트레스가 커지기 쉽다. 잦은 기온 변화나 건조한 공기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봄이면 찾아오는 달갑지 않은 손님 황사로 인한 피해 또한 가축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 큰 일교차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러운 우리나라의 봄 날씨는 양쯔강 기단인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빈번한 통과로 인해 나타나며,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되살아나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4월은 평균 일교차가 12℃ 이상으로 연중 가장 심한 시기이며 이러한 외기 온도의 변화가 오리사 내로

전달될 때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오리 농가는 비닐하우스 및 시설원예하우스를 개조해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 단열 및 온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온도로 인한 스트레스는 체온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오리일수록 민감하며 이 시기에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초기성장을 저해하여 향후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깃털이 완전히 자라는 28일령 이후에는 기온이 5℃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난방이 필요 없다. 하지만 그 이전의 어린 오리들은 일령별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며,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밤과 새벽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오리사 내 온도는 오리의 등높이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적정온도의 판정은 측정온도 뿐 아니라 오리의 상태, 활력, 분포상태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온도와 함께 습도 관리도 사계절 모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특히 건조한 봄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봄철은 강수량이 적어 가뭄이 발생하기 쉬우며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오래 정체될 경우 이상건조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봄에 입추를 했을 경우 3일령까지는 실내가 건조하지 않도록 특히 신경쓰고, 4일령 이후에는 음수량 및 배설량의 증가, 급수기의 넘치는 물 등으로 인해 습도가 증가하므로 과습에 주의한다.

## 깨끗한 공기는 생산성 향상의 기본

외국회사의 사육 매뉴얼을 보면 오리사 내 암모니아 수준을 10ppm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항상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난방을 위해 열풍기를 사용하면 오리사 내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밀폐형 오리사의 경우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닭에 비해서 오리는 호흡기 질병 발생이 별로 없다 보니 환기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리도 공기의 질과 암모니아에 매우 민감하다. 좋은 환경에서 높은 생산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가급적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은 사양 관리의 기본이다. 환기는 오리사 내 유해가스과 먼지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공기중과 깔짚의 습도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다. 환기를 하면 오리사 내의 공기가 빠져나가고 낮은 온도의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데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이면서 습이 생기게 된다. 봄은 겨울만큼 내·외부 온도차가 크지 않아 환기시에 생기는 습이 적으므로 병아리가 어릴 시에는 추가적인 가습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뜻한 낮에는 창을 개방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고 밤에는 일몰 전에 창을 닫아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환기와 온도를 모두 신경 써주어야 한다.

다만 황사가 오는 날은 오리사 내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황사현상은 중국 내륙 건조 지역의 황사가 고층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는 물론 북태평양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병원균으로 인해 호흡기, 순환기, 눈에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황사가 지나가면 오리사 내·외부와 사료급이기,

기타 기구 등을 세척하고 소독약을 분무해주는 것이 좋다.

##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여름을 대비하자

환절기와 봄철은 자칫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이다. 위에서 언급한 온·습도나 환기 관리가 부실할 경우 저하된 면역력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오리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성 간염(DVI)이나 바이러스성 장염(DVE)의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 등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사양관리를 통한 면역력 유지가 기본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또한 미생물제, 유기산제 등 적절한 사료첨가제의 사용은 오리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점점 짧아지는 봄에 이어 금세 다가오는 여름과 혹서기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급이기 등 오리사 시설 내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도록 청결히 유지한다. 오리는 마이코톡신(곰팡이독소)에 닭보다 200배 민감하다. 오염된 사료 등을 통해 곰팡이 독소에 노출될 경우 성장저해, 폐사율 증가로 역시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주의하도록 하고, 여름 장마에 대비한 오리사 시설과 주변 환경을 미리 점검, 보수하도록 한다.

최근 오리산업 현황에 관한 한 논문을 보면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사료효율이 가장 낮고 폐사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물이 움츠러드는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도 느슨해지기 쉽다.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양 관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